

캐나다 치즈 “스테이크 값”

캐나다의 치즈 값이 계속 올라 치즈가 ‘백색금(White Gold)’인 지경이라고 국영 CBC방송이 30일 보도했다.

방송은 국내 치즈 값이 고급 부위 쇠고기 값과 맞먹을 정도로 비싸져 레스토랑과 식품가공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요식업 협회 가트 화이트 회장은 “치즈 1kg이 등심 스테이크 1kg보다 비싸고 우유 1ℓ 가격이 미국 플로리다 산 오렌지 주스 1ℓ와 같다”며 “업계에선 요즘 치즈를 ‘백색금’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요식업 협회는 산업용 우유 값을 16.5%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날 캐나다 낙농 위원회에 정식으로 이를 요청했다.

화이트 회장은 “레스토랑이나 피자체인, 출장요리 등 요식업계 주 업종들이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태”라며 “이런 낙농제품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낙농제품 가격이 지난 1994년 이래 60%나 올랐다고 이는 물가인상률의 두 배나 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캐나다 컨퍼런스보드는 지난 주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낙농업계의 공급관리 체제가 축산농가의 국제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캐나다 낙농위원회는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국내 유제품 공급과 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절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일본, 50년전부터 사료원료 ‘무관세’

정부가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줄이고 세율을 인상하는 작업에 착수, 국내 축산농가들의 사료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웃 일본에서는 이미 50여년 전부터 사료원료 관세를 없애는 등 축산농

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 온 것으로 밝혀져 국내 축산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본지가 특약을 맺은 <일본농업신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본은 1954년 제정된 관세정률법 시행령을 통해 사료공장에 원료로 공급되는 옥수수·호밀·고구마 등 주요 사료원료 품목에 대해 관세를 폐지, 현재까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대두박 등 박류에 대해서도 무관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내년도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기본 지침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료원료 품목 가운데 할당관세 품목으로 결정되면 일반 세율로 수입할 때보다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데,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할당관세 품목을 줄이는 내용의 기본 지침을 마련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된 사료원료 품목수는 올 상반기까지 18개였으나 하반기에는 10개로 줄어들었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더 줄이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축산업계는 기재부 방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료원료 할당관세에 의한 연간 혜택이 현재 754억원에서 453억원 줄어든 301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료업계 관계자는 “사료원료에 대해 1년에 두차례씩 관세가 변동되는 할당관세보다는 영구적인 면세화가 이뤄져야 농가 혜택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美정부, 낙농업계와 손잡고 온실가스 감축

미국 정부는 낙농업계와 협력을 통해 가축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전기로 전환함으로써 온실

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참석 중인 톰 빌색 농무장관은 15일 낙농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5% 감축하기로 업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대표적 온실가스인 메탄은 소 등의 트림이나 배설물에서 발생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데, 메탄이 배출되기 전에 포획해 전기로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미국 내 더 많은 낙농업자들이 전기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혐기성 소화장치'를 구입하게 될 전망이다.

혐기성 소화장치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생분해하는 장치로, 그동안 높은 가격 때문에 낙농업자들이 구입을 꺼려 보급률은 2%에 불과한 수준이다.

언론들은 농가당 100마리가 넘는 소를 사육하고 있는 대규모 낙농농가들이 장치 도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는 6만여개의 낙농 농가가 총 900만 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낙농농가의 77%는 100마리 미만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농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미국 내 전체 배출량 중 7%를 차지하고 있다.

빌색 장관은 이 같은 역사적인 협약은 최초로, 이를 통해 농부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줄이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그는 또 현재 기후변화 협약 체제에서는 감축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이는 낙농업계가 추후 자발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규제기준에 동참할 의욕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몸무게만 1.6톤...계속 자라는 소 화제

키가 보통 성인 남자와 비슷하고, 체중이 소형차 한 대보다 무거운 수소가 화제다. 놀라운 점은 이 수소가 아직도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잉글랜드 남서부 서머셋주에서 자선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가축 몸무게 맞추기 경연대회'에서 '필드 마샬'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대한 수소가 등장했다고 25일(현지시각)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번 행사는 2파운드를 내고 행사에 참가한 가축의 체중을 맞추는 사람에게 가축사로 1톤이나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상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필드 마샬'은 172cm, 1670kg의 거구여서 이번 행사에 참여한 가축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다. 몸집이 8살짜리라고는 믿기지 않을만큼 컸기 때문이다. 마샬은 영국 종전 기록을 갖고 있던 소인 '코로널'보다 82kg 가량 더 나간다. 또 소형차 '미니 쿠퍼'(약 1114kg)나 'BMW 3 시리즈'(약 1384kg)보다도 무겁다.

몸집이 크다보니 먹는 양도 어마어마 하다. 마샬은 매일 7kg 이상의 곡물을 먹는다. 하지만 전혀 비대해 보이지 않는다. 매 끼니마다 지방 함유량이 낮고 섬유질이 풍부한 감자, 오토밀, 보리, 무 등을 골고루 섭취하기 때문이다.

마샬은 사람으로 치면 10대 후반의 청소년과 같은 나이여서 아직도 '쑥쑥' 자라고 있다. 마샬의 주인 아더 더켓(80)씨는 "마샬은 아직 8살에 불과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크게 자랄 것"이라며 "단 똥똥하지 않고 근육질로 자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큰 소의 종전 기록은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 지역의 '올드 벤'이라 불리던 소가 가지고 있었다. 이 소는 193cm, 2140kg에 달했으나, 1910년 죽었다. (📷)

자료출처 : www.cattlenetwork.com, 일본 해외농축산정보 등